

# 법안처리 37%... 20대 국회 초라한 마침표

### 어제 마지막 본회의...n번방 후속법 등 100여건 처리 5·18 특별법 6건·야 문화도시 조성 개정안 21대 국회로

‘역대 최악 국회’란 오명을 쓴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법안처리율은 36%대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특히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 법안은 21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코로나 19 대응체제 강화와 직결된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등 사실상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국회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안, 구직자 취업 촉진법 및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한국판 뉴딜 뒷받침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임기 첫해 2016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의 갈등은 고성고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여야가 극한 협박을 벌여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면서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기도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고, 법안처리도 초라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5262건이다. 2만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0대 국회는 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한 성적표를 쥐게 됐다. 19대 최종 법안처리율 43.9%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7대(58%)와 18대(55%)의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모두 50%대를 넘겼다.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도 뒷전이였다. 광주는 5·18역사를 애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날조·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등 전남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 10여개도 21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개호,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선정되나

### 광주·전남 당선인 상임위 배정 관심...송갑석, 산자위 간사 기대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이들 당선인들의 전략적인 상임위 배치가 중요하고, 이 지역 재선 이상 의원들의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선정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광주지역 당선인들의 경우 최근 내부 조율을 통해 상임위를 나눠 신청했지만 전남지역 당선인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원을 앞두고 최근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국회 상임위 1순위를 신청한 결과, 광주는 위원회별로 고르게 신청했지만 전남지역은 농수산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지역의 경우 이병훈 당선인(동남구)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영덕 당선인(동남구)은 교육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서구갑)과 양향자 당선인(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오섭 당선인(북구갑)은 국토교통위원회, 이형석 당선인(북구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이용빈 당선인(광산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당선인(광산을)은 정부위원회를 1순위로 올렸다.

광주의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방위),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문광위), 지역 SOC(국토위) 등을 위해 고르게 상임위를 신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당선

인들은 앞서 내부 조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해 1순위 상임위를 신청했다.

광주 당선인들의 고른 상임위 배정과 함께 재선인 송갑석 의원의 산자위 간사 선임 여부도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남은 당선인 10명 중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고, 20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상임위원장 선정 여부가 관심사다. 이 의원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김승남 당선인(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 당선인(해남·완도·진도), 주철현 당선인(여수갑)이 1순위로 농해수위를 지원했다. 농어촌 현안과 함께 서남해안 발전 공약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선정이 중복됐으나 지역은 농수산위 쏠림 현상이 필요할 상황이다.

김원익 당선인(목포)은 보건복지위, 김희재 당선인(여수을)은 국토위, 소병철 당선인(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법제사법위원회, 서동용 당선인(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교육위, 신성훈 당선인(나주·화순)은 산자위를 1순위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당선인들로부터 희망하는 상임위를 접수받았고, 조만간 최종 상임위를 배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확정되면 정당별 상임위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상임 위원장 인선을 마치게 된다. 이후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의 21대 국회 상임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與 “윤미향 의혹 종합적 판단” “당 차원 대응” 내부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 등의 조사를 마냥 지켜보지 말고 당 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속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본인이 소명할 것들은 여러 방법으로 소명할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에 대한 당내 기류와 관련, “당내 내부 논란이나 이견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20일 이와 관련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왼쪽)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석, 삼수 끝 21대 국회의장 확정

### 김진표 후보 등록 포기...김상희, 첫 여성 부의장 유력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이 맡게되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협의의 별인 김진표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 의원

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문화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화상 후보에 패했다.

또 민주당의 몫 국회부의장에는 4선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확실시된다. 20일 민주당의 국회부의장단 후보 등록 현

황에 따르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여성인 김상희 의원이 단독 등록했다.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경선없이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부의장 후보로 함께 거론되던 5선 서병수 당선인이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대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핵심 인물인 한신건영 전 대표인과(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20일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9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 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 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한씨의 검찰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효로 봤으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효,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